

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5)

신나이가이멘의 다양한 형상 변화사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 “반피볼”은 컴퓨터로 컨트롤한 기계로 만든 슬럽사와 같이, 실의 모양을 변화시켜 만든 다양한 형상 변화사(形狀變化絲)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반피볼”은 가공하지 않은 제품인 데 반하여, “반피볼”의 기술에 새로운 색의 변화를 추가해 준 슬럽사를 “뉴 반피볼”이라고 부른다.

“뉴 반피볼” 중에서도 “쇼트 슬럽 얀(short slub yarn : SSY)”과 SSY의 정반대 모양으로 슬럽 부분이 실의 축보다도 가는 “역(逆) 슬럽 얀(Gyaku slub yarn : GSY)”은 고객으로부터 대체로 안정된 수요가 있어 제품을 여유있게 생산하여 비축해 놓고 판매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특별한 주문이 있으면, 슬럽의 굵기는 실의 축보다도 2.5배까지 굵게 만들 수 있으며, 슬럽의 길이도 조정할 수 있다.

슬럽사의 소재는 면 100%이거나 면에 텐셀을 섞는 등 어떤 단섬유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의 굵기는 SSY가 10~30수, 40수까지 방적할 수 있고, GSY는 5~25수까지 만들 수 있으며, 이들 외의 실은 주문을 받아 만들 수 있다. 이들의 용도는 캐주얼 의류로 사용된다.

축을 이루는 실의 소재로는 대부분 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면을 비롯한 어떤 단섬유로도 생산할 수 있다. 보통은 슬럽사라고 하면, 축의 소재에는 좋은 섬유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신나이가이멘의 슬럽사는

좋은 면이나 텐셀과 같은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 “원료가 깨끗한 실”로서 잘 알려져 있다.

슬립사를 생산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일은 “직물이나 니트를 짤 때 마치 도안에 따른 줄 무늬 모양이나 거북 등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어떻게 안생기게 하느냐”하는 것인데, 독자적인 기술로 이와 같은 도안과 비슷한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 교직이나 교편으로 다른 소재를 섞어서, 표정이 다양한 천을 보여주고 있어 회사의 개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슬립사라고 할 수 있다. ♣